



2021년 2월 2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23.(화)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2. 22.(월)	담당부서	자동차과
담당과장	이민우 과장(044-203-4320)	담당자	안재훈 사무관(044-203-4322)

친환경차 개발·보급 중장기('21~'25) 기본계획 발표

- ▶ [보급] 친환경차를 25년까지 283만대, 30년까지 785만대 보급
자동차 온실가스를 30년까지 24% 감축
- ▶ [기술] 내연기관차와 동등수준의 전기차·수소차 성능 확보
그린수소·메탄 등 탄소중립 시대를 개척하는 미래기술 개발
- ▶ [생태계] 25년까지 500개,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전환
미래차 분야 중소·중견 유망기업 육성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2월 23일(화)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“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(2021~2025)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
【 수립 배경 및 의의 】

-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,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는 기본계획으로서,
 -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 포럼(70여명)의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, 지난 2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바 있음

□ 금번 기본계획은 ▲2025년까지의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,

- ▲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, ▲차량 전주기 친환경성 평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

【 비전 및 전략 】

□ 3차 기본계획 기간('16~'20) 중 친환경차 보급·수출 지속 증가하였음

* 누적보급('16→'20년) : 24만대 → 82만대(3.6배) / 수출('16→'20년) : 7.8만대 → 28만대(3.5배)

* '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, 수소차 보급 세계 1위,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기록

- 그러나, ▲충전 애로, ▲짧은 주행거리·중대형 차량 미출시, ▲높은 차량 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 가속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,

-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, 연평균 28%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차 시장('25년 年 2,800만대)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

□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“21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”, “25년 친환경차 중심 사회·산업생태계 구축”으로 설정하고,

- 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, ②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, ③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하였음

- 특히,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동차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체계 (LCA*), 배터리 전수명 품질 적합성 기준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, 그린메탄,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기술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였음

* Life Cycle Assessment : ▲ 연료·전기의 생산·사용 ▲ 생산, 폐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

※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(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및 요약본)

【 기대 효과 】

□ 금번 기본계획을 통해 5년후 달라지는 모습은 다음과 같음

- “내연기관차 수출 강국”에서 “친환경차 수출 강국”으로 도약
 - * 친환경차 연간수출 ('20) 28만대 → ('25) 83만대(3배)
친환경차 수출비중 ('20) 14.6% → ('25) 34.6%(2.4배)
- 전기·수소 화물차 쏠차급이 출시되고, 일상에 본격 투입
 - * 現 1톤 전기화물차 → '25년 전기화물차(1톤, 3.5톤), 수소특수차(살수차, 청소차)
수소화물차(10톤, 23톤), 지게차
- “수소트램”을 타고 도심 속을 여행하고,
수소버스를 타고 “도시간 장거리 이동”도 가능
 - * 수소트램 상용화('23), 수소광역버스 출시('22) 등
- 물에서 추출한 “그린수소”와 온실가스로 생산한 “그린메탄”으로
탄소중립시대에 맞는 청정연료시대를 개척
 - * 수전해 수소충전소 상용화(~'23), 그린수소메탄화 상용화(~'23)
- 전기차는 “휴대폰처럼 상시생활충전”이 가능해 지고,
“1회 충전으로 전국 어디든지” 이동 가능
 - * 전기차충전기('20→'25) : 완속 5.4만기 → 50만기, 급속 9.8천기 → 17천기
 - * 주행거리('20→'25) : 400km(부산↔서울) → 600km(강원 고성 ↔ 전남 해남)
- 수소차는 “전국어디서든 30분이내에 충전소 접근이 가능”하고,
“내구성은 2배 개선”되고, “가격은 인하” 추진
 - * 수소차충전소('20→'25) : 70개소 → 450개소
 - * 승용차('20→'23) 내구성 16만km → 30만km, 가격 7천만원 → 5천만원대

- 산업부는 “친환경차는 수송분야 온실가스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며,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임”을 강조하면서,
 - “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범부처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”고 밝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안재훈 사무관(☎ 044-203-43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